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옥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 불안한 내면의 직관적 표현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충 훈

# 불안한 내면의 직관적 표현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장 욱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충 훈

# 인 준 서

김충훈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인은 제작 당시의 현재 본인이 처하고 느낀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우울함이나 공허함을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거나 아픔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무의식에서 기반하여 떠오르는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주제가 본인의 우울과 불안의 시각적 표현이고 그 작품의 형태가 무의식에 기반한 지극히 감정적 표현이라면 그 작품의 이미지는 무의식에 근거했기에 의식의 세계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무의식이 떠올린 이미지를 의식의 단계에 결과물로 시각화하더라도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의 의식은 그 이미지가 내면 깊은 곳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내적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본인은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알아가고 그로 인해 생겨난 내면의 어떤 부분이 작용하여 작품형성에 결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3장의 부분으로 서술되었다.

제 1장 서론은 본인이 가진 우울과 불안한 감정이 작품의 주제가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본인의 내적갈등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 2장 본론에서는 본인의 내적갈등이 무의식의 어떤 지점에 있었는지 서술하고 또한 그것에 따른 내적갈등의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찾아낸 원인을 결과로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소외이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을 통해 상세히 서술한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설명한 내적갈등의 위치와 원인을 결과로 도출하는 과정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작업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2
1. 작품의 형성배경 .....	2
1)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 .....	2
2) 소외에 따른 불안함과 인과관계 .....	6
2. 작품의 표현방법 .....	9
1) 내적갈등의 따른 직관적 표현 .....	9
2) 인과관계의 확장에 따른 직관적 표현 .....	12
3. 작품 분석 .....	14
III. 결론 .....	47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자이 구루 데바 음/ 1082x427x1305mm/ Resin(Sibatool), acrylic/ 2020 .....	15
【작품 2】 방관자/ 810x640x1230mm/ Resin(Sibatool),acrylic/ 2020 .....	18
【작품 3】 은둔자/ 1분50초/ 1470x690x670mm/ Resin(Sibatool),acrylic /2020 .....	22
【작품 4】 엽/ 2440x1220mm/ osb합판, 수성 페인트/ 2020 .....	25
【작품 5】 담/ 1220x600mm/ 합판, 수성 페인트/ 2020 .....	28
【작품 6】 담/ 1220x600mm/ 합판, 수성 페인트/ 2020 .....	31
【작품 7】 담/ 캔버스 20호/ 콩테 드로잉/ 2020 .....	34
【작품 8】 국화/ 1220x1800mm/ 합판, 수성 페인트/ 2020 .....	37
【작품 9】 국화 시리즈/ 캔버스 20호/ 캔버스, 콩테/ 2020 .....	41

【작품 10】 국화/ 캔버스 20호/ 캔버스, 콩테/ 2020 ..... 44

## I. 서 론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외적, 혹은 내적인 영향을 받고 그것이 본인의 이야기, 또는 사회적 이슈를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그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본인의 생각과 심리가 투영된다. 현대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처럼 미술작품을 대하는 시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 중세시대에 종교화는 신도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제작자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현대의 미술은 정반대로 심미적 아름다움, 제작자의 기술적 능력보다 작가 자신의 주체, 의도, 생각이 중요하게 되었다. 주체가 빠진 미술은 아름답지만, 작가의 의도가 묻지않은 공산품, 공예품과 다를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주체가 본인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 된 것이 조금 자연스러워진다.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그 자체가 가장 명확한 주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내적갈등을 바탕으로 제작된 초현실적 형태의 작품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있다. 본인의 내적갈등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으며 과연 그 갈등 간의 인과관계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적갈등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삼원이론을 통하여 설명하고, 그 갈등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의 형성배경

#### 1)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

인간은 한 시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주체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삶 속에는 각 사회가 정해놓은 도덕적, 법률적인 규범이 있고 대부분은 그 규범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한 존재한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경중의 사건 등이 발생할 때, 인간은 이상과 현실에 괴리를 느끼게 되고 ‘불안’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된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회의 틀을 뒤엎을 만한 중대한 사건 중 대표적으로 1차와 2차에 걸친 산업혁명과 왕정과 노예제도가 폐지된 직후(19세기)의 세대들로 그동안 인력을 썼던 노동력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노예가 일반 시민이 되며 빈부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시대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종교의 영향력 약화와 동시에 등장한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sup>1)</sup>, 그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 교육을 추구하였던 계몽주의<sup>2)</sup>(17-18세기)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왕족과

---

1) 신의 존재를 거부한 무신론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 성향의 사상.

2) 이성을 통해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사상이며, 17세기에 처음 주창되어 18세기에 확산하였다. 나무위키

귀족의 권리였던 재산과 지식의 독점을 평민에게 제공한 것은 현 인류사에서 볼 때 당연히 긍정적 영향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당시 시대를 살던 일반 시민들에게는 기존사회에 없었던 자본과 지식을 얻을 권리에서 생겨난 빈부격차, 즉 타인과 자신의 비교는 열등이나 우월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왕이 통치하고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왕족과 귀족을 제외한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했고 종교라는 구심점으로 농민들의 자아를 묶어둘 수 있었기에 설령 어떤 작용으로 이상심리에 의한 정신병이 발생하더라도 그저 미친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었다. 지식과 재산의 독점이 사라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같은 일반 시민이어도 지식과 재산의 크기가 제각각 다르게 형성되었고 과거 똑같이 가난하던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던 정신병이 급격히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이러한 사회적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격변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현실과 이상에서 생긴 괴리,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을 것이다. 그는 히스테리 질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의사 겸 학자였다. 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의식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환자들을 관찰하던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접근하였고 그는 질병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식이 모르는 무의식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인격 구조를 원초아(id), 초자아(superego), 자아(ego)라는 삼원구조(tripartite theory of personality)개념을

만들게 된다.<sup>3)</sup>

원초아란 무의식에 잠재하는 원초적 쾌락을 작동시키는 기능으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욕, 폭력, 식욕 등의 원시적 욕구이다. 그래서 현실세계의 사회가 정의한 법률, 윤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굉장히 자극적인 본능을 추구한다. 여기서 주관적인 본능이란 사람마다 추구하는 쾌락의 성향이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자아는 원초아에서 파생되는 쾌락적 본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부모로부터 습득하는 가치관, 이성적 판단, 윤리적 규범, 도덕적 양심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현실로 비추어지는 자아보다 더욱 이상적이고 완벽한 행동을 추구하게 한다. 옳은 행동에 대한 긍정적 보상의 경험은 자아이상<sup>4)</sup>(Ego Ideal)으로 자리잡게 된다.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합리적 사고의 기능이 고 사회가 규정하는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의식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인간이 정상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의식의 세계다.

자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평상시에 의식 밑에 감춰져 있던 무의식인 원초아와 초자아는 자아와의 심각한 내적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자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아로서 수행하는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중재자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원초아의 충동적 쾌락을 억제할 수 없거나 초자아의 지나친 도덕적 이상을 자아가 현실에서 추구하기 힘들어질 때 나타난다.

---

4) 자아이상이 형성되는 데에는 세 가지 심리표상이 작용한다. 첫째는 존경스럽고 전지전능한 부모의 표상이며, 둘째는 부모나 그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경험이 토대가 되어 형성된 이상적인 자기상이다. 셋째는 중요한 사람들과 이상적인 관계를 맺었던 관계 그 자체다. 프로이트 성격 삼원구조 - 3. 초자아, tistory. parkbbogey.

세계 1차, 2차대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유대인 학살 등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 등은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된 원초아적 본능에 지배된 강한 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19-20세기의 작가들은 이런 중대한 사건에 직접 당사자가 되거나 소식을 접함으로써 무의식에서 나온 원초아적 폭력성에 기반한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게 된다.

원초아의 기능이 강해지면 이성적 판단이 떨어짐에 따라 초자아의 기능을 상실하며 쾌락적 충동에 따른 성범죄, 알콜, 마약, 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반대로 초자아가 요구하는 양심적, 도덕적 가치를 현실의 자아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수치심, 죄책감을 발생시키게 되고 초자아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소한 행동도 타인에게 실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행동을 위축시키고 긴장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 충족, 결혼,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 등을 무의식에 기반한 초자아를 상호 간의 도덕적 이상향이라 가정한다면 그에 따른 현실세계의 그것을 이루어 내지 못한 자신의 자아와 비교하여 심한 괴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와 같은 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외부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초자아적 요구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자아에 대한 자책감, 자기 능력 꺾임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만약 초자아의 기능이 약하거나 없다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반사회적 행동, 범죄에 대해 죄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은 본인의 작품을 표현할 때 무의식에서 발생한 이미지가 정확히 무의식 안 어느 지점에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다. 이 이론은 자아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본인의 감정이 원초아에 기반 된 본능적 쾌락을 표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인지, 초자아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상도덕을 수행하지 못한 자아에 대한 죄책감인지, 자신의 의식을 잠식하는 우울과 불안한 감정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으로써 본인은 현실에 존재하는 자아가 초자아가 요구하는 도덕적 이상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죄책, 자책감이 결과물로서 작품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소외에 따른 불안함과 인과관계

현대시대의 소외(alienation)는 개념은 사회가 정의한 규범의 틀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것에 동화되기 힘들어하거나 실제로 동화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이탈리아의 'alienare'에서 파생된 단어로 '재산, 권리 등을 양도하다, 멀어지게 하다, 소외시키다, 인간성을 잃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작품의 형성배경 1)에서 서술했듯, 오랫동안 지배했던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다시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며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으로 왕족과 귀족의 재산 독점사회가 사라지고 일반 시민들이 합법적 권리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된 사건을 들 수 있다. 재산은 누군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기 마련이고 설령 모두가 부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더 재산이 많고 적음의 현상이 발

생한다. 이는 상대적 우월과 열등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 즉 부작용을 일으킨다. 사회적 열등에서 오는 감정은 곧 소외라는 감정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

현대의 소외현상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에 이바지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멜빈 시이맨(Melvin Seeman)은 1959년 미국 사회학 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외의 개념을 무력감, 무규범성, 고립감, 무의미성, 자기이탈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일으키는 사회적 조건과 그에 따른 인간 행동의 결과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sup>5)</sup>

무력감(powerlessness)이란 어떤 외부로부터 발생한 상호 간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생기는 감정으로 회사 내의 구조적 문제, 노사 간의 갈등을 대표적인 예로 설명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현 사회가 규정하는 윤리적, 법률적 제도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무규범성(normlessness)은 한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의 격변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작품의 형성배경 1)에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19세기의 유럽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전통적 윤리 규범의 붕괴와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의 윤리 규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심리적 갈등상태를 말한다. 분명 얼마 전까지 똑같이 가난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A는 부자가 되고 B는 그대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상대적 우월과 열등 사이에서 오는 소외감이다.

고립감(Isolation)은 사회적 고립과 가치상의 고립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며 살기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사회와의 접촉을 차단

---

5) 오창호『사회심리와 인간소외』, 푸른사상사, 2005, p.170-195

하고 극단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하려는 경향으로 높은 취업경쟁률로 인해 오랫동안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반대로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 당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하는 등, 사회가 정한 규범에 대한 환멸과 스스로에 대한 비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치상의 고립은 다수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스스로 옳지 않다는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다수와 어울리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확증 편향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무의미성(meaninglessness)<sup>6)</sup>은 자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형편없는 경우가 반복될 경우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만한 결과에 예측이 되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이다. 자신이 행하는 원인적 가치를 외면하고 결과적 가치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본인이 하는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회의론적 사고에 휩싸이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믿었던 신적 존재가 사실 신앙에서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처럼 오랫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가치관의 근간이 뒤집혀 극도의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감정을 말한다.

자아 이탈(self-estrangement)은 스스로를 본인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작품분석에서 후술 할 【작품 2】 방관자가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그 사건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모자란 상태로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자신을 잠식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자아는 그 사건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거나 알고도 해결할 의지 없이 끝없이 외면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소외의 특징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삼원이론과 대입해보면 소외나

---

6) 오창호『사회심리와 인간소외』, 푸른사상사, 2005, p.170-195

고립과도 같은 특징은 공통으로 원초아가 추구하는 성적 쾌락, 금진욕, 폭력성 등의 감정과 초자아가 추구하는 이상향적 도덕성, 양심의 가치를 현실세계의 자아가 만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소외이론에 따른 본인의 모습을 투영하여 불교에서 설명하는 ‘업’<sup>7)</sup>이란 용어로 생각하게 되었고, 앞서 정신분석학 이론이 작품을 형성한 무의식 안에서 자아와 초자아, 원초아 사이에서 이미지의 원초적 출처인 ‘위치’를 알아낸다면 그 위치의 감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에 의한 인과관계와 소외이론에 따른 불안함으로 어떤 경중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세세한 사건의 ‘디테일’이다. 구체적으로 ‘아, 그때 그렇게 할걸’, ‘오늘 난 그러면 안됐어’와 같은 후회나 죄책감이 인과관계에서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감정이 유발된 원인이 된 사건을 최대한 인지하는 것으로 그 수많은 경중의 사건들은 그 인과를 받아들이는 감정의 크기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 입을 알게 된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크기의 업은 무의식에 기반한 감정에 기반한 이미지로 작품에 반영되었다.

## 2. 작품의 표현방법

### 1) 내적갈등의 따른 직관적 표현

본인의 제작행위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

---

7) 불교에서는 ‘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업이라 설명한다.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라 하며 몸으로 인한 행위를 신업(身業), 말로 행해진 구업(口業), 마음에서 비롯된 의업(意業)들을 통틀어 삼업(三業)이라 부른다. 앙굿따라니까야. 궤똥음 경(A6:63).<sup>11</sup>

서 사전에 트렌드나 이미지 조사, 작품제작 수리계획, 실패할 시 계획수정 등의 과정을 생략한다. 오로지 경험적 바탕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이미지, 감정, 생각 등을 그 순간에 빠르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직관적 작업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완전한 무의식과 상상력에 의존하는 초현실적 작품을 제작할 때, 그것을 무의식에서 의식 밖으로 꺼내와 정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에서 상상한 원초적 이미지가 변질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의식 밖으로 이미지가 한 번 꺼내 지게 되면 현실의 자아는 현재 제작하고 있는 모양이 형태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되고 대부분은 여지없이 자아의 의지에 따라 그것이 원하는 형태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될 것이다. 물론 완전히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작되는 작품을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의식은 직관적 표현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무의식에서 나온 작업물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소조 작업이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작업할 수 있는 캐스팅 작업이나 드로잉 과정에서 지우개를 이용해 기존 작업하던 과정에서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의식이 지시한다면 역설적으로 의식의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거부하도록 한다.

본인의 작업은 무의식적으로 요구하는 초자아의 도덕적 양심과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는 자아 사이에서 오는 내적갈등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린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내적갈등의 직관적 표현 형태를 취한다. 그렇기에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사용된다.

환조로 제작된 작품들은 기초 골조의 한 특정적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레진을 붙여 완성해나간다. 레진(sibatool)을 이용하는 것은 제작과 동시에 경

화되는 성질과 점토와 비슷한 느낌의 점성, 재료의 내구성과 편의성을 계산한 것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점 조각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붙여나가는 작업에 있어서 석고나 시멘트보다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이 제작한 작품은 신체 구조상 사회가 정의하는 골격의 길이와 비율, 관절이 꺾이는 각도 등이 정석적, 자연적 형태를 완전히 무시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관절구조를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완성하고 작품의 겉면을 덮고 있는 양감 덩어리들은 사회와 대중이 인식하는 자연적 형태를 따르지 않기에 심한 이질감과 부자연스러움이 발생한다. 혐오감을 유발하는 겉면의 덩어리들은 본인의 내적갈등에 따른 인과관계의 표현으로 내적갈등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들은 모두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긴 자책감에 대해 매우 혐오스럽다 인식하여 제작된 것으로 자아와 초자아 간의 내적갈등을 통해 ‘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것을 불분명한 크기의 덩어리로 표현하였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 그 업보의 크기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에 업의 크기나 모양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똑같은 형태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

본인은 이러한 업의 형태를 작품을 표현할 때 무의식에 의존한 직관적 표현을 통해 제작하였다. 즉 피부에 양감 덩어리는 자아가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를 초자아가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따른 자책감을 ‘내 탓이오.’와 같은 인과관계로 연결했다. 피부에 종양처럼 자신의 업보를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작품의 빛을 받는 곳과 그림자가 드리우는 곳의 컬러링을 자연광에 의지하면서도 일부러 더 극명한 대비를 위해 그림자가 드리우는 부분에 어두운 계열의 색을 넣고 빛을 받는 하이

라이트 부분은 일부러 바탕색보다 더욱 밝게 채색하는 극대화된 색의 대비를 사용한다.

환조는 다방면의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사물을 관찰하기에 최적화된 표현방법으로서 명확하게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모두 관찰자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면이 아닌 뒷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의 자신의 모습과 도덕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초자아 사이에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내적갈등에서 발생한 우울증, 내면의 불안, 과오, 수치 등을 외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심리가 발현된 것으로 소외, 구석으로 숨고 싶은 은둔자 적 특성, 대중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회피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 2) 인과관계의 확장에 따른 직관적 표현

드로잉의 함에 있어서 소재 자체는 국화나 돌담 등의 자연물이지만 무의식의 이미지를 근거로 한 즉흥적으로 그려낸 추상적 표현에 가깝다. 그렇기에 소재가 국화나 돌이라고 해서 딱히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것과는 의미가 멀다. 본인이 합판이나 캔버스에 작품을 드로잉하는 과정은 수정, 보완이 전혀 없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구도 또한 정해진 바 없이 화면이 가득 찰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한다. 이를 완성하는 과정은 생각할 겨를 없이 무아지경에 가까운 상태로 집중된 무의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진행하게 된다.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등 생각의 틈은 무의식을 통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에 현실의 의식을 침투시키는 기회를 주고 시각적 만족을 원하는 의식은 무의식에서 파생된 원초적 이미지를 수없

이 바꾸어 놓을 수 있기에 제작부터 완성하는 단계가 될 때까지 중간에 끊임이 없는 반복적 패턴의 제작 행동을 취한다. 메이크업 브러쉬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찍는 기법을 활용하거나 콩테를 이용하여 오로지 팔과 손을 수직으로 이동하는 단방향성 표현기법을 사용한다. 끊임없이 무엇을 빠르게 반복하는 행위는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잡념과 의식이 작품 속에 끼어드는 것을 막고 집중도를 높여 무의식에 가까운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인이 평면에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캔버스와 건재용 합판을 사용한 이유는 특유의 거친 표면 때문이다. 이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콩테를 사포에 갈아내는 것, 또는 갈린 콩테의 흑연 입자를 사포의 거친 면 사이로 채워 넣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입방 면적이 고운 사포로 갈면 모든 면적에 골고루 갈린 입자가 들어가듯 반대로 거친 사포는 그 흑연 입자의 분포가 무작위로 분포된다. 즉 군데군데 흑연이 잘 들어가지 않아 캔버스의 흰 바탕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표면의 특성 또 한 직관적 표현의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본인이 굳이 지우개로 화이트를 넣지 않아도 그리는 과정에서 저절로 화이트가 생기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후술한 【작품 4】 업은 무한한 인과관계의 표현을 위해 OSB 합판<sup>8)</sup>을 사용했다. 억지로 페인트로 가득 메꾸려 해도 거친 틈 사이를 칠할 수 없는 정도의 거친 표면은 자연스럽게 어두운 배경에 나무색 채색되지 않은 빈 부분을 그대로 노출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굳이 공간을 짹짹 채워 넣지 않아도 거친 표면의 특성으로 인한 하이라이트가 생겨난다. 메이크업 브러쉬로 끊임없이 페인트를 찍는 과정에서 이 빈 부분은 자연스럽게 작품 표현의 일부가 된다.

---

8) OSB합판: (Oriented Strand Borad)의 약자로 작은 나뭇조각들을 접착, 압착하여 가공된 목재 패널이고 일정한 나뭇결의 방향이 없는 무작위적 형태를 취한다.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잘못된 의지로 행동한 업에 의한 무한한 인과관계에 따른 내적갈등을 표현하고자 했던 본인은 이 내적갈등이 화면을 넘어 무한한 영역으로 표현되길 원했다.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은 빈 공간의 여백이 있다는 것은 화면 안에 본인의 인과의 내적갈등이 정확히 이 정도의 크기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해버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화면보다 커야 하고 오히려 화면을 넘는 영역까지 확장되기 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 3. 작품분석



【작품 1】 자이 구루 데바 움/ 1082x427x1305mm/ Resin(Sibatool), acrylic/ 2020

【작품 1】 자이 구루 테바 움/ 1082x427x1305mm/ Resin(Sibatool), acrylic/ 2020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1082x427x1305mm

작품재료 : Resin(Sibatool), acrylic

제작방법

1. 금속환봉을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 후 기본골조를 용접 후 제작.
2. 형짚, 비닐,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적당한 부피감을 주고 떨어지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잘 고정시킨다.
3. 레진(시바툴)을 이용하여 특정 한 부분을 시작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형태를 완성해 나가되 순간의 감정에 따라 다양한 양감을 표현한다.
4. 완전히 굳은 후 아크릴로 채색한다. 화이트 펄, 핑크, 하늘색, 노란색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필름지 색상과 유사하게 칠하되 그림자가 드리우는 부분은 갈색계열을 섞어서 일부러 더 어둡게 칠하여 빛을 받는 밝은 면과의 대비를 더한다. 붓은 뭉툭하고 둥근모양의 메이크업 브러쉬를 사용하였고 일부러 붓터치의 느낌이 나지않도록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마른 붓 상태에서 파우더를 바르듯이 툭툭 찍는 듯한 느낌으로 채색하였다.

## 작품설명

무릎 꿇은 자세로 상체를 앞으로 비스듬히 뺀고 있으며 양팔은 마치 하늘에서 한줄기 빛을 갈망하듯 전도를 원하는 듯 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작품의 주 방향이 뒷모습이고 그에 따라 발바닥, 엉덩이, 등과 뒤통수가 정면으로 보인다. 머리와 머리카락이 있는 듯하나 그 경계가 모호하여 얼굴과 머리카락인지 일체화된 머리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팔과 몸통은 매우 가늘며 금방 부러질 듯한 모양이다. 뒷모습이 정면이 된 이유는 사회로부터 비추어지는 현실의 자아가 초자아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며 생기는 심리적 내적 갈등이 외부로 보여지고 싶지 않은 본능에 가까운 배치다.

존 레논(john lennon)의 Across the universe의 가사 중에 Jai guru deva om의 문구에서 착안한 작품이다. 자이 구루 데바 옴은 힌두어로 ‘선지자여 깨달음을 주소서’ 라는 의미이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가사의 의미는 깨달음을 얻어 자신이 바뀌길 갈망하지만 가사 구절 중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라는 가사는 깨달음을 갈구함에도 자신의 내면세계가 바뀌지 않음을 의미하거나 반대로 내면의 세계가 바뀌지 않으니 깨달음을 달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아의 크기와 본인이 느끼는 초자아의 괴리는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람의 성향마다 주관적이지만 자아가 낮아질수록 자신보다 외부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대표적으로 종교를 꼽을 수 있다. 현실의 자아는 종교에 관심이 없지만 본인의 초자아적 무의식은 종교적 믿음을 얻어서라도 자아를 회복하라는 충고일 수도 있다.



【작품 2】 방관자/ 810x640x1230mm/ Resin(Sibatool),acrylic/ 2020

## 【작품 2】 방관자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810x640x1230mm

작품재료 : Resin(Sibatool),acrylic

### 제작방법

1. 철제 의자에 금속 환봉을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 후 의자의 받침 부분이 흔들의자의 모양처럼 바닥의 기본골조를 등글게 용접 후 제작한다.
2. 형짚, 비닐, 스티로폼 등 일차적이고 대략적으로 부피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적당한 부피감을 주고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 시킨다.
3. 레진(시바툴)을 이용하여 살점을 붙이며 완성해 나간다. 특정 한 부분을 시작으로 넓게 퍼지듯 붙여나가되 흔들의자의 특성상 무게중심에 의해 넘어가지 않도록 작품 자체를 바이스로 고정시키거나 흔들의자의 아랫받침 부분 중 시야에 잘 안보이는 부분에 나무 조각 등의 받침목을 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4. 완전히 굳은 후 아크릴로 채색한다. 검정, 진한 녹색, 남색, 피부색을 이용하여 채색하되 양감이 튀어나온 부분은 일부러 더 밝은색으로 채색하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나 그림자가 드리우는 부분은 더 어둡게 칠하되 특히 양감이 가장 도드라지는 하이라이트 부분은 피부색을 칠하여 양감의 대비를

한층 더 극대화한다. 붓은 메이크업 뭉특하고 둥근 붓을 이용하되 붓 터치나 물에 의한 뭉은 느낌이 나지 않도록 붓에 물기를 수건 등에 문질러서 물기를 적당히 빼준다. 어느 한 지점부터 툭툭 찍어주는 느낌으로 칠하기 시작하고 점점 넓게 퍼져나가며 채색한다.

#### 작품설명

초현실적인 조형기법을 통해 부조화스럽게 만든 것은 작가 개인의 불안한 이상심리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타인이 어떤 사건에 처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 행위를 ‘방관’이라고 한다. 그 행위 자체를 자신에게 접목시킨 작품으로서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마치 타인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흔들의자와 몸이 일체화된 형상으로 의자에 앉은 채로 무언가 바라보는 것 같지만 눈이 없고, 엉덩이와 팔, 다리조차 의자와 일체화되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형태의 골격의 각도,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근육의 방향을 따라서 불규칙한 양감 덩어리를 표현하였고 만성적으로 자신이 가진 초자아의 도덕적 가치보다 현실의 자아가 뒷받침되지 못한 영향으로 낮아진 자아를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방치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흥물스럽게 피부를 덮고 있는 양감 덩어리들은 기본 골격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가 정의한 골격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매우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이다. 이 피부를 덮은 골격의 형태와 검고 어두운 톤의 컬러링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경중의 사건들이 인과관계에 따라 제각각

발현되는 업을 표현한 것이다. 어두운 색감은 그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방관자는 뒷모습이 정면인 구도로 의자 등받침처럼 보이는 등 부분이 메인이고 빈약한 엉덩이와 팔걸이에 걸친 듯한 앙상한 팔과 목은 거북목처럼 뻗어 있고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 부분이 생략되었기에 뒤통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뒷모습이 정면이 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작품 1】**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두개골 부분이 생략된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방관함으로써 사고기능이 저하되고 뇌와 그것을 감싸는 두개골이 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품 3】 은둔자/ 1분50초/ 1470x690x670mm/ Resin(Sibatool),acrylic/2020

### 【작품 3】 은둔자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1470x690x670mm

작품재료 : Resin(Sibatool),acrylic

#### 제작방법

1. 금속환봉을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 후 팔과 다리의 관절의 방향성을 감각적으로 어느정도 예측한 상태로 기본골조를 용접한다.
2. 형겔, 비닐,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적당한 부피감을 준다.
3. 레진(시바툴)을 이용하여 한 지점을 시작으로 점점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완성해 나간다.
4. 완전히 굳은 후 아크릴로 채색한다. 검은색, 갈색, 붉은색, 피부색, 흰색, 분홍색 등의 색채를 이용하였고 피부가 완전히 벗겨져 피하 근육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듯한 컬러링을 의도하였다. 양감의 대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림자가 드리우는 부분은 같은 색에 어두운색을 섞어서 칠한다. 메이크업 붓을 이용하되 톡톡 찍는 기법을 활용하고 물기가 거의 없는 마른 상태의 붓을 사용한다.

#### 작품설명

심각하게 왜곡되고 정석적인 형태를 배제한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형상이

다. 방향성을 잃은 듯한 팔다리와 과도하게 휘어진 등은 앞으로 펼쳐질 인과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한 것으로, 마치 A와 B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 또한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업으로 자신에게 돌아올지에 대한 확실한 주체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이런 행동 패턴은 작품을 배치할 때 무의식적으로 구석으로 숨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설치가 됐다. 피부가 완전히 벗겨져 피하 근육이 드러난 듯한 매우 부자연스럽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 실체는 상당한 겁쟁이로 그 의도는 피부라는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막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하고 ‘약점이 모두 들통났다.’ ‘내 치부가 모두 드러났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딘가 숨을 곳을 찾아야겠어.’ 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자신의 망가진 자아를 절대 들키고 싶지 않으니 ‘도망치겠다. 고립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작품 4】 엽/ 2440x1220mm/ osb합판, 수성 페인트/ 2020

## 【작품 4】 업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2440x1220mm

작품재료 : 8mm osb합판, 검은색, 흰색 수성페인트, 각목, 목공용 풀

### 제작방법

1. 합판 뒷면에 각목을 합판과 동일한 크기의 사각틀로 제단하여 목공용 풀을 바르고 에어타카로 고정하는 방향으로 휨방지 프레임을 제작.
2. 앞면에 검정, 흰색의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였다.
3. 메이크업 브러쉬를 주로 사용하였고 사전 스케치나 딱히 어떤 형태를 그리려 하는 의도 없이 제작하였다. 수성페인트 자체에 물기가 있으므로 물을 전혀 섞지 않고 오로지 페인트만 사용한다. 첫 터치에 페인트가 덩어리째로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건에 붓을 한번 훑어 낸다. 2440x1220mm의 생각보다 넓은 면적을 작은 메이크업 붓으로 칠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찍는 것이 중요하다.

### 작품설명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인과관계에 따른 업을 이미지화 하여 채색한 작품이다. 어떠한 사건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흔히 ‘업보다, 업보를 당했다.’ 등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결정한 일을 당성 할 때, ‘과업을 이루었다.’ 라고 말한다. 업의 개념은 굉장히 많아서 업을 스스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업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능동적, 수동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인과관계 그 자체라 생각한다. 능동적, 수동적이라 함은 '내 의지로 행한 것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를 말하고자 했다. 그래서 업이란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수많은 선택 지이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고심 끝에 어떤 업이 될지 모르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업의 표현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추상적 형태를 띠고 있다. 어떤 구체적 형상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붓이 가는 대로 합판의 모든 공간을 채워 넣은 형식이다. 또 한 작은 덩어리 혹은 큰 덩어리들이 불규칙적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덩어리의 모양 자체를 업에 의한 사건이라 봤을 때,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뒤바뀌는 운명의 표현이고 각각의 사건은 절대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없다는 본인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큰 재물을 얻거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대업을 이루었을 때, 반드시 기쁘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업의 크기는 절대적이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일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도 업, 덩어리의 크기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을 수는 없다. 만약 내, 외부적으로 어떠한 간섭이 없는 그래서 순백의 형태의 자아가 존재한다면 그 업의 형태는 완벽한 구의 모양일 것이다.



【작품 5】 담/ 1220x1800mm/ 합판, 수성 페인트/ 2020

## 【작품 5】 담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1220x1800mm, 1220x600mm

작품재료 : 합판, 각목, 목공용 풀, 검은색, 흰색 수성페인트, 철물점 붓, 롤러

### 제작방법

1. 합판 뒷면에 각목을 합판과 동일한 크기의 사각틀로 제단하여 목공용 풀을 바르고 에어타카로 고정하는 방향으로 횡방지 프레임을 제작.
2. 앞면에 검정, 흰색의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였다.
3.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공업용 브러시를 사용하였고 사전 스케치없이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롤러를 이용하여 검은색 바탕을 전체적으로 채색하였다. 흰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팔레트에 적당량 덜어서 순간의 감정에 따라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두 색을 적절히 배합하며 채색한다. 손바닥 넓이만한 공업용 붓을 사용하여 팔을 수직으로 움직이며 세로방향만을 사용한다. 가능한 화면상의 모든 부분을 여백없이 채운다.

### 작품설명

담 혹은 담벼락은 외부와의 차단을 상징하는 일차원적인 매개체이다. 외부로부터의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선뜻 먼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어려

위하고 어느정도 가까워지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그 이상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는 것 또한 불편해하는 심리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답은 【작품 3】의 은둔자와 심리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구석으로 숨은 자가 외부와의 단절을 위해 벽을 쳤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초현실적 표현이고 현실의 자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페인팅은 콩테나 연필처럼 열은 면으로 시작해서 밀도를 올려 나가는 것이 아닌 한 번의 터치로 지나갈 때 즉시 형체가 완성된다. 수정을 하지 않는 직관적 표현을 함에 있어서 흑연의 밀도가 아닌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은 설령 비슷한 의도로 작품을 제작하더라도 같은 세로방향의 단방향성 표현임에도 느낌이 다르다.

흑연으로 그릴 때와 차이점이라면 흑연의 단방향성의 채색방법은 점점 밀도가 쌓이는 과정에서 차분한 느낌을 주지만 페인트는 위 아래로 잔상이 남는 듯한 극대화된 운동에너지가 표현되고 격한 감정의 표출을 담고 있다.



【작품 6】 담/ 1220x600mm/ 합판, 수성 페인트/ 2020

## 【작품 6】 담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1220x1800mm, 1220x600mm

제작재료 : 합판, 각목, 목공용풀, 검은색, 흰색 수성페인트, 철물점 붓, 롤러

### 제작방법

1. 합판 뒷면에 각목에 목공용 풀을 바르고 에어타카로 고정하는 방향으로 횡방지 프레임을 제작하였다.
2. 앞면에 검정, 흰색의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였다.
3. 메이크업용 브러쉬를 사용하였고 사전 스케치없이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롤러를 이용하여 검은색 바탕을 전체적으로 채색하였다. 흰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팔레트에 적당량 덜어서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마음가는 대로 두 색을 적절히 배합하며 채색하되 붓의 결로 칠하는 것이 아닌 푹푹 찍는 듯한 터치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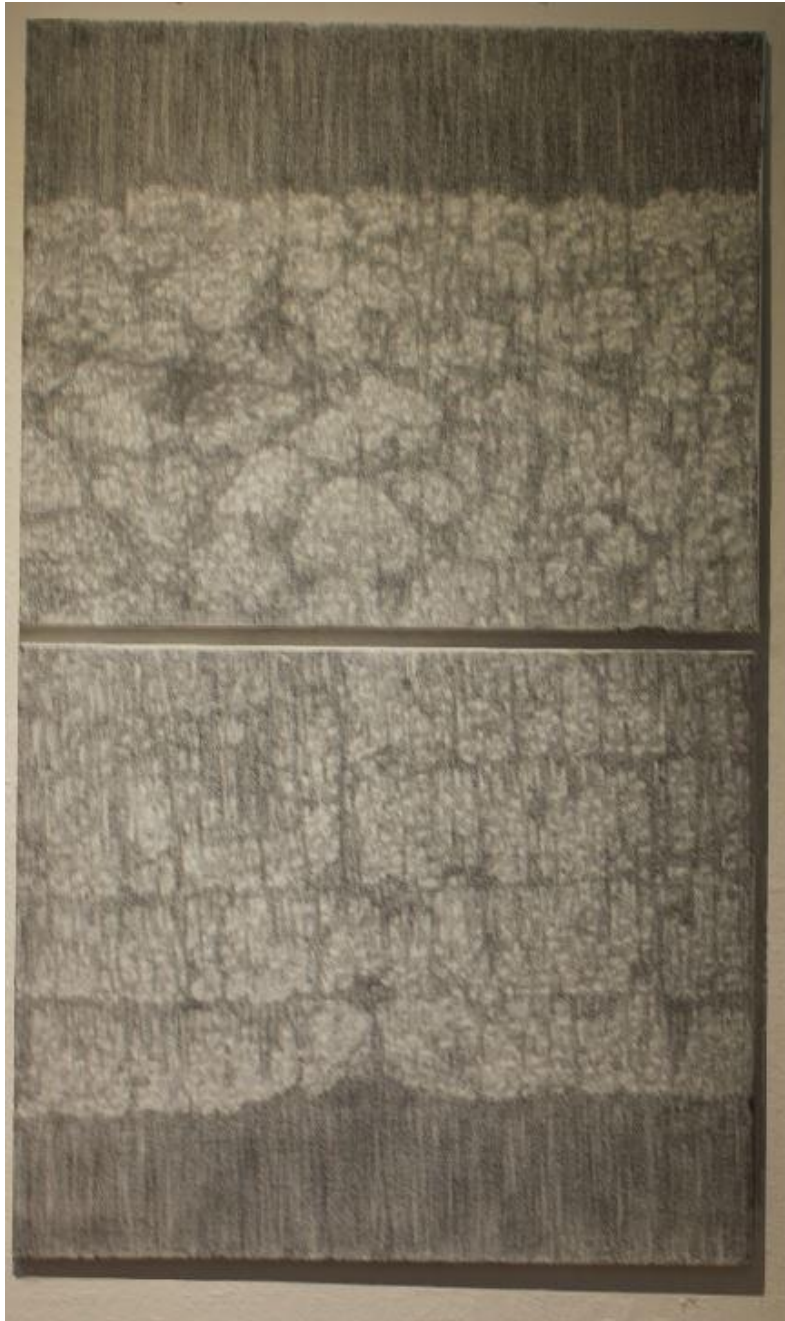
### 작품설명

앞서 【작품 5】에서 설명했 듯이 외부와의 단절을 표현하였다.

【작품 6】은 사전에 밑그림이나 소재에 대한 자료조사 없이 순수한 본인의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그려냈다. 그렇기에 작품 제목이 분명히 담이지만 딱히 돌의 느낌이나 소재가 아닐 수 있는 초현실적 표현이다. 돌처럼 본다면 돌이지만 몽글몽글한 생김새의 덩어리들은 기체 구름이 퍼지

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작품 6】의 특징은 외부로부터 흘러오는 듯한 정체불명의 액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액체가 의미하는 것은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인과관계 즉, 자신에게 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다. 이 액체가 마른 땅에 단비의 역할을 할지 독약이 되어 담장 안의 영역을 오염시킬지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미 불명의 액체가 자신의 영역에 흘러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 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에 타인 없이 오로지 자신만 살고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에서 수십, 수백번 흘러들어오는 자연스러운 사람들과의 소통이다. 그러나 내면에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는 이들에게는 낯선 인물의 영향력은 언제나 긴장감을 준다.



【작품 7】 답/ 캔버스 20호/ 콩테 드로잉/ 2020

## 【작품 7】 담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캔버스 20호

제작재료 : 캔버스, 콩테, 젯소, 젯소 붓

### 제작방법

1. 캔버스의 거친면을 완화하기 위해 걸표면에 젯소를 바른다.
2. 젯소가 완전히 마르면 콩테를 이용하여 드로잉을 시작한다. 콩테를 이용하여 드로잉을 시작한다. 콩테는 연필깎지를 끼운 뒤 최대한 콩테의 끝 심 부분에서 가장 먼부분을 검지와 검지, 중지로 짚는다. 가장 옅은 색으로 시작하여 수직의 선을 이용하여 점점 밀도를 높여나간다.

### 작품설명

콩테를 이용한 캔버스에 드로잉 작업과정으로 완성한 <담7>은 오로지 세로 방향의 선만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것은 사실 세로선으로 그리는 것 자체에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보다는 빠르고 끊임없는 반복적 행동으로 무의식을 근거로 떠오른 이미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단방향으로만 깔린 흑연은 여러 방향으로 그려낸 것보다 단조롭지만 차분한 느낌을 준다. 만약 캔버스가 사포고 콩테를 사포에 갈아낸다고 가정했을 때, 단방향으로 갈게 되면 그 부분에만 흑연입자가 들어가고 다른 방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흑연 가루가 사포 사이로 침투하지 못하게 된다. 그로인해 한방향으로만 드로잉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볼때 캔버스의 표면이 거칠수록

밀도와 색감이 약하고 군데군데 흑연이 들어가지 않아 흰 부분이 보이며 선명도 측면에서 흐릿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일부러 흐릿해보이는 효과를 주는 경우는 불분명함,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을 심리적으로 표현할 때 쓰일 수 있다.



【작품 8】 국화/ 1220x1800mm/ 합판, 수성 페인트/ 2020

## 【작품 8】 국화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1220×1800mm

작품재료 : 합판, 각목, 목공용풀, 검은색, 흰색 수성페인트, 철물점 붓, 롤러

### 제작방법

1. 합판 뒷면에 각목에 목공용 풀을 바르고 에어타카로 고정하는 방향으로 횡방지 프레임을 제작하였다.
2. 앞면에 검정, 흰색의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였다.
3.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공업용 브러시를 사용하였고 사전 스케치없이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롤러를 이용하여 검은색 바탕을 전체적으로 채색하였다. 흰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팔레트에 적당량 덜어서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마음가는 대로 두 색을 적절히 배합하며 채색한다. 칠하는 방향은 합판이 세워진 기준으로 오로지 팔을 수직으로만 움직이며 세로 방향으로 칠한다. 한 번 칠한 부분은 절대로 덧칠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 작품설명

국화의 꽃말이 그렇듯 본인이 마주한 커다란 죽음으로부터의 애도표현이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울증이 유발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외부로부터의 경중의 사건을 꼽는다. 가벼운 부정적 사건이 누적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사건이 자신의 자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충격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지만 소중할수록 중요한 인물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커짐에는 틀림없다.

본인에게 어찌면 부모님보다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유일한 존재가 있다. 그분은 바로 외할머니로 본인의 기억에 일부 흐릿하게 닿는 유아기 시절부터 30대 중반이 되어 이제는 도저히 어린이라 부를 수 없는 나이가 되어도 ‘아이고, 내새끼’ 하며 사랑해 주셨다. 외할머니의 건강은 키우던 반려견의 죽은 것에 영향이 컸다.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있어서 반려견의 위치는 그녀에게 있어서 매우 커다란 존재였을 것이다. 어느 날부터 검정색으로 염색도 하지 않으셨고 기력이 하루가 다르게 쇠하시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어떤 날 집에서 쓰러진 외할머니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탓인지 그 후로 치매를 앓으셨다.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셨는데 점점 심해지는 치매증세로 주변인과 자식들까지도 인지하지 못했으나 임종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어머니와 본인 만큼은 기억해내서 환하게 웃으셨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은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그만큼 본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대한 사건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비극적인 중대한 사건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의식적인 허무, 공허의 감정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본인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한동안 주기적으로 꿈에서 만났던 적이 있다. 꿈속에서 본인은 기억이 만들어 낸 어떤 방에 있었고 외할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체형에 이상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손수 이부자리를 펴주시는 장면이었고 본인은 이상하게 그 장면이 안쓰러워 꿈속에서 평평 울었는데 그 순간 잠에서 화들짝 깬 기억

이 있다.

세로방향같은 단방향의 페인팅은 콩테나 연필처럼 열린 면으로 시작해서 밀도를 올려나가는 것이 아닌 한 번의 터치로 지나갈 때 즉시 형체가 완성 이 된다. 흑연으로 그릴 때와 차이점이라면 흑연의 단방향성의 채색방법은 점점 밀도가 쌓이는 과정에서 차분한 느낌을 주지만 페인트는 위 아래로 잔상이 남는 듯한 극대화된 운동에너지가 표현되고 격한 감정의 표출을 담고 있다. 이는 타인의 죽음으로 오는 슬픔과 불안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져 어쩔줄 모르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한다.



【작품 9】 국화/ 캔버스 20호/ 콩테 드로잉/ 2020

## 【작품 9】 국화

작품크기 : 캔버스 20호

제작재료 : 제작재료 : 캔버스, 콩테, 젯소, 젯소 붓

### 제작방법

1. 캔버스의 거친면을 완화하기 위해 걸표면에 젯소를 바른다.
2. 젯소가 완전히 마르면 콩테를 이용하여 드로잉을 시작한다. 콩테를 이용하여 드로잉을 시작한다. 콩테는 연필깍지를 끼운 뒤 최대한 콩테의 끝 심 부분에서 가장 먼부분을 검지와 검지, 중지로 짚는다. 가장 옅은 색으로 시작하여 수직의 선을 이용하여 점점 밀도를 높여나간다.

### 작품설명

앞서 【작품 8】 에서 설명했 듯 국화의 의미를 담았다.

앞서 【작품 7】 에서 설명한 단방향의 밀도를 쌓는 기법으로 드로잉 하였다. 이 작품에서 총 10송이의 국화가 그려져 있고 정해진 구도없이 임의의 공간에 위치하며 화면을 가득 채운 모습이다.

【작품 7】 의 작품과 같이 뿌옇고 흐릿하여 각각의 형태마다 경계선이 선명하지 않고 약간 모호한 것이 특징이다. 직관적 표현을 위해 오로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화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에 열중했다. 국화 꽃잎과 잎사귀 묘사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한치의 빈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 마구 엉키고 뒤틀린 듯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어둡게 깔린 이파리의 영긴

배경은 경계가 모호한 불확실성과 맞물려 무겁고 불안한 느낌을 준다. 화면의 모든 구석을 드로잉 하였기에 이것은 화면 외부에도 무한히 반복적인 형태가 있음을 암시한다.



【작품 10】 국화/ 캔버스 20호/ 콩테 드로잉/ 2020

## 【작품 10】 국화

제작연도 : 2020

작품크기 : 캔버스 20호

작품크기 : 캔버스 20호

제작재료 : 제작재료 : 캔버스, 콩테, 젯소, 젯소 붓

### 제작방법

1. 캔버스의 거친면을 완화하기 위해 걸표면에 젯소를 바른다.
2. 젯소가 완전히 마르면 콩테를 이용하여 드로잉을 시작한다. 콩테를 이용하여 드로잉을 시작한다. 콩테는 연필깎지를 끼운 뒤 최대한 콩테의 끝 심 부분에서 가장 먼부분을 검지와 검지, 중지로 짚는다. 가장 옅은 색으로 시작하여 수직의 선을 이용하여 점점 밀도를 높여나간다.

### 작품설명

앞서 【작품 8】 에서 설명했 듯 국화의 의미를 담았다.

앞서 【작품 7】 에서 설명한 단방향의 밀도를 쌓는 기법으로 드로잉 하였다. 이 작품에서 총 10송이의 국화가 그려져 있고 정해진 구도없이 임의의 공간에 위치하며 화면을 가득 채운 모습이다. 앞서 【작품 9】 의 국화와 완전히 동일한 스타일로 제작되었다. 11송이의 국화꽃이 구도 배치등에 제약을 두지 않고 그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위한 용도로 화면 전체를 덮은 모습이다.

【작품 9】와 마찬가지로 단방향으로 깔린 흐릿하고 불확실한 경계는 형태와 형태 간의 식별을 모호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어두운 톤으로 깔려있는 배경과 더불어 불안한 심리를 보여준다.

### Ⅲ. 결 론

본인에게 있어서 내면의 갈등은 현실 세계의 자아를 가지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큰 고통을 준 장본이자 곧 표현된 작품 전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내적갈등은 무의식에서 생겨난 감정이고 수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기 힘든 모호한 감정이었다. 본인은 작품을 형성하면서 무의식에 근거한 이미지들은 초자아와 자아의 갈등 즉, 초자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도덕과 양심을 현실의 자아가 충족시키지 못한 과정에서 발행하는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소외, 고립, 우울이라는 감정은 초자아와 자아의 갈등으로부터 생겨난 죄책감으로부터 발생한 심리적 현상이고 이것을 업과 인과관계 따른 소외라는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본인의 내적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무의식에서 생겨난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표현 함으로써 의식이 무의식에 참견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했다. 무의식에서 발생한 원초적 불안의 이미지가 의식에 의해 수정되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인은 순간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중간에 절대 수정 보완 작업을 허용치 않는 제작과 동시에 완성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본인은 본인에게 일어나거나 어쩌면 자초한 인과관계의 현상을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고 그 내적갈등의 원인 그 자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보다 효과적인 직관적 표현을 위한 제작방법에 있어서 소재 선정이나 인과관계의 표현방법은 더욱 발전, 개선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본인은 앞으로 매 순간 발생하는 업과 인과관계에서 오는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 지식하우스, 2009
- 오창호, 「사회심리와 인간소외」, 푸른사상사, 2005
- 볼프강 카이저,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지혜 역, 아모르문디, 2911
-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2013
- 김은정, 「사회불안장애\_남 앞에 나서기 힘들어요」, 학지사, 2016

### 《참고논문》

- 최아랑, 「인간소외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김은미, 「초현실주의(Surrealism) 미술에 내재된 무의식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기타》

- 불교용어사전, 경인문화사, 1998

## ABSTRACT

A study on the intuitive expression of an anxious inner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Kim, chung hoo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producing a work, it may be influenced externally or internally, and it may express your story or social issues, but any work you create reflects your thoughts and psychology. Just as society is rapidly changing day by day in the modern era, the view of art works is rapidly changing. In the Middle Ages, religiousization was aimed at awe-inspiring believers, and the subject of the producer was not important. Contemporary art, on the contrary,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the artist's own subjects, intentions, and thoughts than aesthetic beauty and the producer's technical abilities. Art without subject is beautiful, but the artist's intention will be no different from industrial products and artifacts. In that way, it becomes a little natural that the theme has become a very subjective emotion of its

own. This is because they judged themselves to be the clearest subject rather than looking for it from the outsi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eoretically explain surreal forms of work based on internal conflicts that only you have. It was important to know where and how your internal conflict arose and w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licts wa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plain specifically how internal conflict occurred through Freud's psychoanalytic three-way theory, and describe how the conflict eventually affected me and reflected in my work.

# 인 준 서

김충훈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정정주



심사위원 장욱희



심사위원 김성복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